

<동정자료>

## 김현미 장관 “청년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 위한 맞손” 당부

-21일 서대문구 기숙사형 청년주택서 지자체 협력형 청년주택 공급의지 강조  
-이어진 구청장 간담회서 지자체 협력형 공공주택 명칭 “메아리” 제안기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수)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 내부를 직접 살피고, 서울시 내 11곳\* 구청장과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 용산구·성동구·광진구·종로구·도봉구·은평구·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에게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2호 주택 공급에 이어 오는 9월 3~5호 주택이 문을 열 예정이다.

\* (1호) 서울 구로구 개봉동(145명), (2호) 서울 성동구 사근동(21명)  
(3호) 서울 종로구 연지동(142명), (4호) 서울 종로구 연지동(48명)  
(5호)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48명)

○ 김 장관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둘러보고 “청년들이 통근·통학에 편리한 위치에서 저렴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년주택을 지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가 기숙사를 직접 운영하는 등 지자체도 청년 주거안정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 또한 김 장관은 “지난 2차례(‘18.11월, ‘19.5월)의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도심 내 부지 중 7곳이 행복주택 등으로의 변신을 준비중이며,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심 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한결 덜어질 것”이라며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 동작구(대방동 군부지, 동작역 주차공원, 환경지원센터), 중구(중구청사), 동대문구(신이문역 철도부지), 마포구(가좌역 철도부지), 금천구(금천구청역)

○ 나아가 지자체 협력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사정에 밝고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접하는 기초지자체장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청년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유희 부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기초 지자체장의 역할을 거듭 당부하였다.

□ 김 장관은 이어진 구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메아리”라는 지자체 협력형 공공주택 명칭을 제안하였다.

○ “메아리”는 “국가와 청년의 외침에 대한 지자체의 응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칭으로서,

-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도심 내 유희 부지를 적극 발굴해달라는 국가의 제안과, 도심 내 높은 월세와 저임금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의 목소리에 지자체가 응답한다는 뜻이다.

○ 특히, 김 장관은 “메아리는 청년 주거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청년의 외침에 답하는 지자체의 기여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이름”이라며,

- “지난 2차례의 구청장 간담회에서 발굴된 동작구 주차공원 등을 비롯한 7곳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준공 시 메아리로 이름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 장관은 “입지가 우수한 서대문구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방문해 보니,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도심 내 후보지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 “수요자인 청년들의 입장에서 살고 싶은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 8. 21

국토교통부 대변인

## 참고 1

##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 □ 사업 개요

- (내용)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동별로 매입·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하거나 운영기관에 저가 임대(시세의 30% 수준)
- (입주대상) 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19~39세 청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 학생,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선발
- (임대조건/거주기간) 시세 50% 이하 /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특이사항) 학기단위 계약 허용,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집기 빌트인, CCTV·24시간 상주인력 등 입주자 안전관리 위한 시스템 구비 등
- (계획) 신혼·청년 지원방안('18.7)에 따라 5천호(1만명) 입주 추진('~22)  
\* (공급계획) '19년 1천호 → '20년 1천호 → '21년 1.5천호 → '22년 1.5천호

### □ 사업 추진현황

연번	소재	수용인원	운영	기숙사비	개관
1호	서울 구로구 개봉동	39호 (145명)	사학재단	평균 23만원 (보증금 20만원)	'19.3
2호	서울 성동구 사근동	21호 (21명)	성동구청	평균 25만원 (보증금 없음)	'19.3
3호	서울 종로구 연지동	142호 (142명)	LH	평균 33만원 (보증금 60만원)	'19.9
4호	서울 종로구 연지동	48호 (48명)	LH	평균 33만원 (보증금 60만원)	'19.9
5호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48호 (48명)	LH	평균 33만원 (보증금 60만원)	'19.9

- '19.8월 제2차 입주자 모집(3~5호) 시, 238명 모집에 총 2,270명이 지원하여 9.5대 1의 경쟁률 기록(1호 모집 시 5.6대 1)  
\* 제3호(종로구) 8.8대 1, 제4호(종로구) 5.6대 1, 제5호(서대문구) 15.7대 1

**참고 2****서대문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개요**

## □ 주택 개요



위치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90-26
대지면적	245.9㎡(74.3평)
지역지구	일반상업지구 신촌지구단위계획구역
규모	지하2층 / 지상10층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1·2층) 2호 오피스텔(3~10층) 48호
전용면적	근생시설 : 92.27㎡(27.9평) 오피스텔 : 18.4㎡(5.6평)

-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
  - 건물 내 24시간 상주인력 배치(지하1층 관리실), 건물 입구 출입 통제시스템 및 CCTV 설치하여 사생 안전관리
  - 3~6층(24호)는 남학생 전용, 7~10층(24호)는 여학생 전용 공간으로 배정
- (설비) 실별 냉장고·세탁기·에어컨·공기청정기·책상·쿠탁 등 빌트인
  - 2층 근린생활시설은 입주자 커뮤니티공간(휴게실·독서실 등) 및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공유사무실\*(co-working space)로 활용
- (월 임대료) 보증금 60만원, 월 임대료 평균 34만원(시세 50% 이하)
- (입주자 모집결과) 총 48명 모집, 752명 지원(경쟁률 15.7대 1)

□ **도심 행복주택 개요**

- (개념) 신혼부부·청년·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지자체와 협의하여 행복주택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지역편의시설과 복합개발
  -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업무협약('14.7월)
- (입주대상)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 20%는 노인·취약계층에게 공급

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노인계층
입주 자격	무주택자인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만 19~39세의 미혼 무주택자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해당지역 주거급여 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

- (사업방식)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며, 행복주택 건설비의 30%는 출자, 40%는 용자(주택도시기금)로 지원

□ **서울시 구청장 제안부지 사업추진 현황**

- 그간 2차례 장관님-서울시 구청장 간담회('18.11월, '19.5월)를 통하여 발굴한 부지 7곳에 대하여 행복주택 등 사업추진방안 마련 중

< 서울시 구청장 제안부지 >

회차	제안구청	지구명	호수(예정)
1차 간담회 (‘18.11월)	동작구	동작역 주차공원	500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1,900
		대방동 군부지	1,000
2차 간담회 (‘19.5월)	중구	중구 청사부지	660
	동대문구	신이문역 철도부지	300
	마포구	가좌역 철도부지	600
	금천구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250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부 호수는 변동될 수 있음